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 프로젝트 퍼포먼스 '달콤한 이슬, 오월길 위에 내리다'



지난 8일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과 금남공원 일원에서 열린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 특별 프로젝트 퍼포먼스 행사에서 화가와 퍼포먼스 작가, 시민들이 어우러져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시민·예술인 문화로 하나되다

국내·외 예술인 100여명 금남로서 그림·퍼포먼스
14개국 민중미술전 등 11월 9일까지 전시·강연



"80~90년대 광주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 8일 밤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는 예술인들의 작업실이자 시민들의 문화 놀이터로 변했다.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광주를 찾은 예술인들의 그림, 퍼포먼스 작가들의 공연, 시민들의 웃음이 어우러져 하나의 거대한 작품을 만들었다.

이날 행사는 '달콤한 이슬, 오월길 위에 내리다'를 주제로 열린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 특별 프로젝트 퍼포먼스.

행사의 시작은 하안천을 이용해 예술가와 시민들이 진행하는 '씻김굿 길놀이'가 알렸다. 이어 100명의 예술인들이 '5·18에서 세월호까지'를 주제로 광복전 위에 그림을 그리는 '오월길을 여는 100인의 518 릴레이 아트', 오월을 주제로 한 국제예술가들의 퍼포먼스 'Look Together'가 함께 진행됐다.

피아니스트 임동창씨의 연주가 금남로를 감싸자 축제 분위기는 한껏 달아올랐다. 또 성병경, 안토니 크라와우스키 등 퍼포먼스 작가가 본격적인 퍼포먼스를 펼치고, 임동창씨의 즉흥 연주가 어우러져 금남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공연 무대로 바뀌었다.

한쪽에서는 예술가들이 하안 광복전을 일렬로 늘어뜨려 놓고 5·18과 세월호를 주

제로 그림을 그리는 장관을 연출했다. 조관제, 이희재, 안중걸, 원수현, 전세훈 등 전국에서 광주를 찾은 유명 만화가들이 각자의 스토리를 광복전에 녹여냈다. 원수현씨는 바다에 뿌리를 두고 피어나는 아름다운 모녀를 그렸고, 조관제씨는 노란 종이 배와 국화꽃, 절규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담았다. 안중걸씨는 작품을 그린 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과 아이들의 캐리커처를 그려주며 이날 하루를 보냈다.

만화가 공성술씨는 "만화를 통해 사회를 담아보기 위해 이번 행사에 참여했다"며 "장르를 구별하지 않은 예술인들의 어우러짐이 가슴을 설레게 한다"고 말했다. 화가 고근호씨는 뒤집힌 세월호의 모습과 무언가 말을 하고 싶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희생자들의 말 풍선을 그렸고, 김해성씨는 연꽃이 더러운 물에서 피어나듯 국가폭력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꽃피우는 꽃과 여성의 이미지를 표현했다.

작품과 함께 "이 물속이 다시 엄마 뱃속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낮이여 고단한 부유를 결코 잊지 않겠다." 등 작가들이 쓴 글귀가 시민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줬다.

화가 김해성씨는 "30년 전만 해도 작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거리에서 작품을 그리는 난장이 많았고, 그 자리가 각각의 그림을 선보이고 격려하며 문치는 자리였다"며 "광주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꼭 비엔날레만이 아니라 이렇게 작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함께 호흡하는 난장 문화이자, 흥의 문화"라고 말했다. 화가 한희원씨는 "자기방에서 혼자만의

작업을 하던 화가들이 금남로에 모이는 것 자체가 5월 대동정신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전했다.

시민 이금진(여·26)씨는 "오늘 행사를 보니 광주가 문화도시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다"며 "이런 행사가 광주에서 지속적으로 열렸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100명의 예술인들이 그린 작품은 광주비엔날레가 끝나는 11월9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전시된다.

퍼포먼스에 앞서 광주시립미술관에서는 20주년 기념 특별 프로젝트 특별전 '달콤한 이슬, 1980 그후'가 개막했다. 특별전에는 14개국 47명의 작가가 참여해 각국의 다양한 민중미술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나치 시절 저항작가로 유명한 독일의 여류화가 케테 콜비츠의 작품 49점과 소설 '아Q정신'으로 유명한 소설가 루쉰의 판화 작품 등이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나치 시절 독재와 오키나와의 미군부대 문제, 타이완과 제주 4·3 항쟁, 5·18민주화운동을 관통하는 '국가폭력'이라는 주제는 무거운 울림을 준다.

이날 개막행사에 참여한 평론가들은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조형성과 주제성을 모두 갖춘 전시"라며 극찬하기도 했다.

한편 광주 곳곳에서 열리는 퍼포먼스와 전시, 강연 등 20주년 기념 특별 프로젝트는 오는 11월9일까지 계속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http://www.gwangjubiennale.org/>)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김경민기자kki@kwangju.co.kr



광주성악콩쿠르 열전 돌입

남성 부문 1차예선 15명 통과...30일 본선

대한민국 음악계를 이끌 차세대 젊은 성악가를 뽑는 광주성악콩쿠르가 지난 9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에서 남성 부문 1차예선을 개최하며 뜨거운 경연 일정에 돌입했다.

남성 부문 예선에는 국내외 24개 대학 성악도 50명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수도권에서만 40여명이 도전했으며, 빈시립음악대와 뮌헨국립음대 유학생도 포함됐다.

이날 1차 예선에서 통과한 15명은 16일 여성부문 예선 통과자 등과 함께 오는 23일 2차 예선을 펼친다. 2차 예선에서는 광주 출신 작곡가 정율성 선생의 가곡 중 13곡을 과제곡으로 지정했다.

본선은 오는 30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상금은 1등 1500만원, 2등 700만원, 3등 300만원 등 총 3200만원이 수여된다. 최고 입상자에게는 오는 10월 24일 열리는 '페스티벌 인 광주 정율성 축제' 개막공연에서 광주시립교향악단과의 협연 기회가 주어진다. 문의 062-670-7465.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춤, 국악을 품다

동구 로드 페스티벌 16일 전통문화관

임지형&광주현대무용단 공연

광주문화재단이 올해 새롭게 시행한 프로그램이 지역특화문화거점 지원사업이다.

공모에서 뽑힌 임지형&광주현대무용단은 광주시 동구를 거점 삼아 1년 내내 다양한 공연을 펼치고 있다. '2014 광주 동구 로드 페스티벌'을 통해서다.

오는 16일 오후 3시 열리는 '춤, 국악을 품다'는 무등산 자락 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 시민들을 만난다. 현대무용과 국악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작품 '신 심형단'이 레퍼토리다. '프롤로그', '공공', '마을', '궁궐', '에필로그'로 구성된 이번 작품에서 심형은 차정은, 왕 역은 김유진, 땀더미 역은 김재식씨가 맡았다. 그 밖에 조은주·민주아·최정윤·이지원씨 등 30여명이 출연한다. 심봉사 역은 연극배우 정일행씨가 맡았으며 화순만연초등학교생들도 함께 무대에 선다. 국악실내악단 '홀림', 류세운(아쟁), 임황철(대금·국악양상판 판 단원), 이미소(판소리·광주시립극단단원), 홍은혜(피아노)씨 등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임지형&광주현대무용단은 단체의 우수 레퍼토리를 선보이는 '춤, 광주를 품다'(9월20일·전통문화관), 조선대 무용과 문화기획 수강생들과 함께 하는 '춤, 광주 폴리를 품다'(9월24일·광주 폴리) 등을 계획 중이다. <http://gmdc.or.kr>. 문의 062-230-7423. /김미은기자 mekim@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KOMA INSTITUTE OF BUILDING ARCHITECTS

트라이슈머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20년은 가는 데!!

시공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시공
4. 옥상시공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 밸런트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